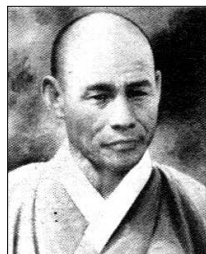


“뜻대로 안 되는 일은 심신 단련하는 도가니”

불법 대선자금 사건 수사를 지휘하며 현역 국회의원 26명을 사법처리해 '한국판 마니폴리테(깨끗한 손)'라 불리기도 한 송광주 前 검찰총장. 송 전 총장은 지난 4월 2일 열린 퇴임식에서 '한때의 적막(寂寞)을 겪을지언정 만고(萬古)에 처량한 이름이 되지 말라'는 <채근담(菜根譚)>의 구절을 소개하며 '사회악에 맞서 정의를 세우기 위해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중국 명대 말 홍자성이 지은 <채근담>은 시대를 뛰어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는 고전이다. '사람이 나물뿌리(菜根)를 늘 씹어 먹을 수 있다면 세상의 어떠한 일이라도 못할 게 없다'고 했던 <소학>의 구절에서 제목을



만해 한용운 스님.

따운 <채근담>은 인생과 처세술에 관한 훌륭한 지침서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독립지사이자 시인이었던 만해 스님은 왜 <채근담>에 주목하고 해설서를 펴내게 됐을까?

"세상에는 분에 넘치는 권력을 얻기 위해 허리를 만 번씩 굽히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자들과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해 온 몸을 다 바쳐 일하고도 만족하는 자들이 넘쳐납니다. 자유롭되

만해 스님이 풀이한 정신수양의 길 '채근담'

방방하지 않고 포용하되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편안히 가지기 위해서는 오직 정신을 수양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만해 스님은 '정신 수양의 길'을 제시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채근담>에 주목한 것이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음을 격정하지 말고, 마음에 흠족함을 기빠하지 말라. 오랫동안 편안한 것을 믿지 말고, 초기의 곤란을 깨닫지 말라"는 구절에 대한 스님의 강의를 들어보자.

"자신의 뜻대로 안 되는 일은 심신을 단련하는 도가니와 같습니다. 천하만사는 변동이 무상해서 성공과 실패가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어떠한 경우에 처하더라도 눈앞의 상황에 구애 받지 말고, 사물의 공통된 이치에 의거해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처럼 스님은 <채근담>의 각 구절을 풀이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바른 이치와 자신의 정신을 수양하는 길을 조목조목 친절히 설명하고 있다.

중국 청나라 건륭 시대에 내림 스님이 간행한 <채근담> 광본(廣本)을 저본으로 삼았고 일본에서 널리 읽히는 약본(略本)을 일일이 대조했다. 일본이나 우리나라에서 출간됐던 <채근담>이 전집과 후집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과 달리 만해

스님의 <정선강의(精選講義) 채근담>은 수성, 응수, 평의, 한적, 개론의 다섯 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스님이 1917년 신문판에서 발행한 <정선강의 채근담>을 원본으로 삼았으며 한문투의 번역을 우리말로 새롭게 다듬어 현대인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했다. 당시 원본에 실렸던 박한영 스님의 추천사도 이번 책에 그대로 실렸는데 한영 스님은 "책을 읽고 사방을 바라보니 적막한 하늘에 서늘한 바람이 한적 일며 스스로 감화됨도 깨닫지 못했다"고 적고 있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한용운의 채근담 강의
한용운 지음
어성원·이민성 옮김
필맥 | 1만6천원



알음알이 버려야 보이는 임제록

임제 100할 이진오 김태완 옮김 | 장경각 | 9천5백원

임제의현(?~867) 선사어의 어록을 모은 <임제록>에는 글자의 뜻만으로는 그 진의(眞意)를 헤아리기 힘든 선문답들이 가득하다. 이러한 선문답들은 알음알이로 해석을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행을 통해 참구해야 할 화두 그 자체다. 하지만 먼저 선문답을 이루는 '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속에 담긴 의미도 바르게 읽을 수 없을 것이다.

이진오 교수(부산대 한문학과)와 무심선원 김태완 원장(부산대 민족문화연구소 전임연구원)이 펴낸 <임제 100

할>은 원전 텍스트에 충실한 <임제록> 해설서로 평가된다. <임제록> 전체를 대화의 주제와 참가하는 사람이나 장소 등에 따라 100개로 나눈 후 원문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확한 번역을 시도했고, 주요 용어들은 주를 통해 풀이했다. 선문답의 내용에 대한 해설은 따로 하지 않고 있다.

<임제 100할>의 또 다른 특징은 저본의 차별성이다. 현존하는 <임제록>의 판본은 <사 가 어 록(四家語錄)>(1648년)과 <천성광등록(天聖廣燈錄)>(1148년) <고존속어록(古尊宿

語錄)>(1403년) 그리고 가장 널리 읽히고 있는 '선화본(宣和本, 1298년)'이 있다. <임제 100할>은 이 중에서 <사 가 어 록>을 저본으로 삼고 있다.

번역자들은 "가능한 초기 임제록의 편집 체계를 따르자는 취지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유통되고 있는 '선화본'이 아닌 <사 가 어 록>을 저본으로 삼고 <천성광등록>을 대조본으로 삼았다"고 말한다.

<임제록> 해설 뒤편에 부록으로 <조당집>과 <충고승전> 등에 전하는 임제 스님의 일화와 법문, <임제록>에 나타나는 선(禪)사상 등을 소개하고 있다.

여수령 기자



계환 스님의 대승기신론 해설

대승불교의 세계 계환 스님 지음 | 운주사 | 1만5천원

"대학원 교재로 <대승기신론>을 강의한지도 벌써 8권이 됐습니다. 하지만 시중에 나와 있는 해설서들은 전문적인 불교용어가 너무 많아 접근하기 어렵거나 또는 지나치게 일반적이어서 그 심오한 뜻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늘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불자들을 위한 <대승기신론> 해설서 출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함에 그동안 강의한 내용을 정리해 책으로 펴내게 됐습니다."

5세기경 인도 마명 스님이 저술한

것으로 알려진 <대승기신론>은 '대승 불교 최고의 입문서이자 개론서'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일반 불자들은 '대승'이나 '기신'의 뜻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계환 스님(동국대 불교학과 교수)은 가능한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원문과 해설 그리고 일반 불자들을 위한 자세한 해설을 덧붙였고, 연구자들을 위한 전문적인 내용은 각주로 처리했다.

1부에서는 '대승'과 '기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금껏 논란이 되고 있

는 저자 마명보살에 대한 진위 문제는 어떻게 봐야 하는지, <석마하연론> <대승기신론의소> <대승기신론법기> 같은 <대승기신론>의 주석서와 연구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을 살피고 있다. 다양한 도표 등은 대학원 강의 노트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하다. 2부에서는 <대승기신론>의 내용을 일 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말로 풀이했다. 3부는 논 의 취지를 보다 정밀하게 살피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장으로, 원문과 직역, 해설을 비롯해 300여개의 각주를 덧붙여 자세한 뜻을 살피고 있다.

여수령 기자

영혼의 어머니 히말라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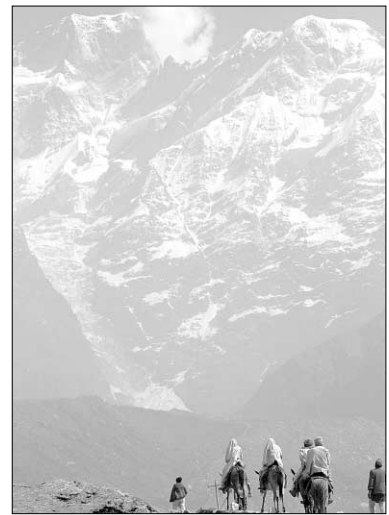
많은 사람들에게 히말라야는 눈 덮인 산봉우리와 '신이 머무는 산' '어머니의 산'이라는 이미지로 기억되어 있다. 하지만 서쪽으로는 파키스탄과 인도 북부에 접하고, 남동쪽으로는 네팔과 부탄 인도 시킵주에 이어지며 동쪽으로는 브라마푸트라강의 대골곡점에 이르는 히말라야 산맥은 아직 그 실체를 다 내보이지 않은 미지의 산이다.

시킵 히말라야, 가르왈 히말라야, 편잡 히말라야, 부탄 히말라야 등 히말라야를 7개의 권역으로 나눠 기행문을 펴내고 있는 임현담씨(진단방사선과 전문의)는 최근 <가르왈 히말라야> 1, 2권을 선보였다.

해마다 봄이면 1-2개월씩 히말라야를 찾는 그는 "나를 키워낸 것의 8할은 히말라야였고, 그 히말라야에서 또 다시 8할은 가르왈 히말라야였다"고 말할 정도로 가르왈 히말라야에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다. 히말라야와의 인연을 처음 맺게 해준다고, 세상을 보는 또 다른 시각을 갖게 해 준 곳이 바로 가르왈 히말라야기 때문이다. 집 속은 성(城)을 의미하는 '가르'와 주인을 의미하는 '왈'이 합쳐진 말인 가르왈은 네팔 서쪽 국경과 인도 북부 지역에 위치한 힌두교도들의 성지다. 하지만 가을이면 눈과 얼음으로, 여름이면 폭우로 인한 산사태가 빈발하는 쉽지 않은 순례길이기도 하다.

"부모가 나를 육체적으로 키워다면 가르왈 히말라야가 정신적으로 나를 성장시켜 그동안 눈을 마주쳤던 계곡, 시냇물, 수행자들 그리고 눈부신 설봉(雪峰)들이 법문으로 각인되어 있었다. 그들이 서로 다투어 입을 연 것이 바로 이 책이다."

책에는 순례길을 따라 펼쳐지는 아름다운 풍경과 '나는 누구인가' '왜 사는가'라는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해발 3583미터에 위치한 케다리나트로 가는 길에 만난 히말라야 임현담씨는 "은빛 설산 히말라야를 오르는 길은 곧 나를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말한다.

가르왈 히말라야 1, 2 글자진 임현담 | 종이거울 | 각권 1만7천원

여수령 기자

편견없는 시대의 눈 비판적 글쓰기

'비판적 글쓰기'란 시대와 사회의 흐름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사안에 대한 균형적인 분석, 그리고 다른 관점을 지닌 타자와의 치열한 대화가 바탕이 된 글쓰기라 할 수 있다. 때문에 구술회 교수(동국대 윤리문화학과)는 "비판적 글쓰기를 하는 사람은 억압과 부자유의 공간에 머물면서도 긍정의 눈빛으로 세상을 보며, 냉혹한 비판 정신으로 시대를 거슬러 빛나는 투사적 영혼의 소유자"라고 정의한다.

불교 생태철학과 환경윤리학 연구에 전착해 온 구교수는 지난 10년간 시론과 칼럼, 논평, 에세이 등을 통해 다양한 '비판적 글쓰기'를 시도해 왔다. 그간 언론 매체에 기고했던 글 중에서 61편을 선별해 엮은 책 <덕과 약덕사이>를 펴낸 구교수는 "비판적 글쓰기가 늘 건강하고 편견 없는 시대의 눈인 동시에, 세상을 긍정하는 파수꾼이기를 희망한다"고 말한다.

인터넷을 통한 '가벼운 글쓰기'에 길들여진 요즘의 젊은이들에게 쉽게 읽히는 글은 아니지만, 대학과 학문, 아니카즘과 휴머니즘, 세계 석학의 이론에 대한 진단과 우리 사회가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되짚어볼 수 있다.

여수령 기자



덕과 약덕사이
구술회 지음 | 미토 | 1만2천원

금주의 베스트북 10 책방 역시 아날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임제록 강설	무비 스님	불광
2	선을 가까이 하라	참회승	어시어문
3	불타석가모니	외타니베 쇼코	동쪽나라
4	기도	일타 스타	효림
5	방의지사	조용현	진심계열출판부
6	산색	연관 스님	호미
7	홍서	달라이 라마	오래된미래
8	한글통일법요집	조계종포교원	조계출판사
9	임보리행론	산티 데바	하얀 연꽃
10	길을 걷는 자 너는 누구냐	장휘옥 외	터북커뮤니

도서 안내: (02)737-0695



선수행 문답집, 선(禪)을 묻는 그대에게 1억겁 무명의 체중을 막힘없이 시원하게 풀어줄 선수행에 대한 문답집! 건강 대선사의 인가 제자 대원 문체원 선사님이 임제종지를 통달한 안목으로 통쾌하게 답하였다.

☎ 02-522-0122
www.zenparadise.com

상쾌한속면 신비의은행식
건강한하루

배게속에 넣고 평생 사용 늘~건강하고 편안한 잠자리

“부모님께 최고의 효도선물”
은행식 빛 생명의기

복한에서 은행식은 죽어가는 것도 살린다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야에다 수돗물을 받아 붓어를 넣으면 붓어는 배를 뒤집고 얼떡이며 죽어갑니다. 이때 은행식을 넣으면 붓어는 생형하게 살아납니다. 고급난 등 이외의 죽어가는 것도 다 살릴 수 있어요. 배게속에 은행식을 넣고 주무시면 평생 뇌졸중, 중풍, 치매, 고혈압 전신증이 치유됩니다. 그리고 기억력이 살아나고 혈압이 떨어지며 기미가 잘 고한 얼굴로 미백효과도 뛰어나요. 하루에 5시간만 주무셔도 8시간 잔것과 같은 효과가 있어 머리가 맑고 상쾌하며 아침에 기분이 일어납니다. 심하게 코를 골거나 기침을 하시는 분에게 적극 권장합니다. 북한 일부 고위층만 사용하며 저를 믿고 주무시면 건강하게 장수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의심이 많아요. 손발이 저주 붓는 분은 은행식 목걸이, 팔찌와 같이 사용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음이온을 첨가하여 어깨 통증완화 및 각세포의 기능 향상

건강도 지켜주고 젊음을 유지하는 은행식 안심목걸이, 팔찌

◆목걸이, 팔찌: 머리를 맑게 함, 손이 부거나 어깨결림해소, 혈압조절, 혈압상승억제, 전신에기를 끌고루 전달, 심장박동원활, 신진대사촉진, 신경 및 피가 맑아짐,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좋아요.

은행식 108염주, 손목입장주도 제조 판매입니다

◆현재 많은 스님, 불자들이 사용 후 기적같은 사례들이 많이 있어내고 있습니다◆

금강타터 문의전화 (02)723-9184 www.dk21.net

◆입금계좌: 농협 1143-12-04974 승행회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범죄때마다 음향 때문에 고생 하셨다면...”

사찰에 설치된 음향이 대부분 단순히 화성기능의 음향 시스템이었습니다. 이제, 저렴한 가격에 스님의 법문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음향 시스템을 갖추십시오.

유리브랜드: JBL, dbx, AKG, MACKIE, CROWN

www.1544108.com

전화 주시면 무료로 점검 및 음향 설계해 드립니다.

야단법석 문의: 050-5844-0108 (관음사법부)

사원 모집

(주)야단법석은 개인의 능력보다는 불법에 대한 신심을 더 중요시하는 회사입니다. 신행생활을 하면서 인정된 직장생활을 원하시면 야단법석과 함께 하십시오.

- 모집구분: 지점장 - 남 0명, 여 0명, 사원 - 남 0명, 여 0명
- 근무처: 본인 거주지 • 문의: 050-5244-0108

매일경제신문 인제 경영학 연재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아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수십년간 몸안에 쌓인 온갖 노폐물이 빠져나와 체중감량이 된다는 이강욱 교수의 20여년 임상경험은 비만인들에게는 귀가 번쩍 뜨이는 희소식이다.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자가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법적과 암 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해나 노폐물이 빠져, 건강해질로 바꾸는 발효연액 딸씨법

똥똥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현대의학으로 도 구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속박이 쌓이고 관철 사 이사이로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기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만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해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발효연액은 우리몸에서 자란 50여종의 야채, 과일, 해조류 등을 3~5년간 장기간 자연발효 숙성시킨 것으로 그 속에는 천연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이 살아 숨쉬고 있다. 이것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인체의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효소는 인체 곳곳에 마치 스프레이처럼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과잉으로 축적 되어있는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 대수술을 일상 생활 중에 소리없이 진행한다.

02)523-0708 초록원 (팔보호소)

목조 건축물

목조 건축물의 문제점

특히 곰팡이, 해충, 가루나무좀벌레, 흰개미 목재부식 이 모든것을 해결합니다.

저희 동화특수산업(주)은 목조 건축물을 과학적으로 보존에 임하고 있습니다!

취급품목

- 흰개미 방제 시스템
- 가루나무, 좀벌레살충
- 목재, 석재, 기와발수제
- 곰팡이 이끼 제거제
- 목재전용(부식)방부제

목재 복원 시스템 (특허번호 특허 제 0476325호)

www.dongwhaind.co.kr

동화특수산업(주)

본사/공장: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427-1

TEL. (031)451-6232 (대) FAX. (031)451-6238

HP. 011-747-2111